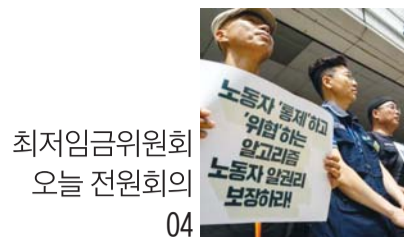


22일 Market Index			
↑ 코스피	7847.71	↑ 코스닥	1161.13
	(+32.12)		(+55.16)
↓ 금리 (연이자율)	3.736	↑ 환율 (원/달러)	1517.60
	(-0.017)		(+11.50)



최저임금위원회
오늘 전원회의
04

‘6억 성과급’ 기대감 뒤 커지는 사내갈등 변수

삼성 노조 투표율 90%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90%에 육박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비반도체 부문(DX) 직원 중심의 노조가 법원에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사업부 간 갈등 양상도 표면화되는 분위기다.

25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마감에 이를 앞둔 이날 오전 8시 29분 기준 찬반 투표율은 86.16%를 기록했다. 27일 오전 10시 투표 마감까지 투표율은 9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앞서 반도체(DS) 부문에 대해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협상 합의안 내일 투표마감 “회사 분위기 고려 가결 가능성 커” 조합원 ‘성과급 격차’ 불만 확대 “노노 갈등이나 조직 이탈 우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현재 회사 내부 분위기를 고려하면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안 통과 가능성이 커질수록 사업부 간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특히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이날 “오는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모면에서 세번째인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합의를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투쟁 본부를 꾸려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DX 부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투본에서 탈퇴했다. 이후 초기업노조 측은 공투본을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사업부별 이해관계 충돌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DX와 DS 부문 간 성과급 격차가 확대되면서 조직 내부 박탈감과 노노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DS 부문 조합원이 절대다수인 만큼 잠정합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사업부별 성과와 보상 차이에 대한 불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내부 단결이 중요한 조직인데 사업부별 이해관계가 계속 충돌하면 노조의 결속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삼성전자 역시 조직 내부 화합 차원에서 보상 체계를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잠정합의안과 관련한 주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 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명부 확보 이후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함께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회장, 사과 예정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삼전·하이닉스 ‘2배 ETF’ 내일 나온다

금융당국, 일간 변동률의 ±2배 하루만에 60% 손실 우려 ‘주의’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변동률 2배로 반영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가 증시의 단기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의 일간 변동률을 ±2배로 따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2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국내에는 엄격한 분산 투자 요건 등에 따라 특정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금지돼 왔다. 반면 미국·홍콩 등 해외 시장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활발하게 거래 중이다. 미국 나스닥에는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고, 런던 등 유럽 증시에는 개별 종목 3배 레버리지도 상장돼 있다. 해외에는 국내 종목 2배 ETF도 있다.

금융당국이 그간 분산투자 원칙과 투기성 우려를 이유로 가로막았던 규제를 풀 것은 해외 ETF로 이동한 투자 수요를 완화하기 위한 의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풀림과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레버리지 ETF는 ‘저택대 효과’ 때문에 단기간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 가격 제한 폭이 30%이므로,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60%의 손실도 날 수 있다. 또 투자금 100만 원이 50%의 손실로 50만 원이 되고 나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가 올라야 한다.

특히 하루 단위로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지수가 등락하는 횡보장에는 투자금 손실이 크게 불어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하면 일반 상품은 100만원→80만원→96만원으로 4%의 손실이 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100만원→60만원→84만원으로 16% 손실이 난다. 따라서 레버리지 상품은 횡보장에서 장기 투자용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험 없는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기적으로 거래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요즘 주가 등락 폭이 큰데 숙련되지 않은 투자자가 삼성전자라고 (믿고) 들어와서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metro

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원칙적 합의… 휴전 60일 연장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 트럼프-모스타바 최종승인 남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합의안에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 뉴욕타임스 등은 다만 우라늄 폐기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 고위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60일간의 휴전설이 대두된 상태다. <관련기사 4면>

단, 공식 합의문에 아직 서명은 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료는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또 모스타바가 큰 틀에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가 서명할 구체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조항에 동의할지, 모스타바가 공식 승인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문 역시 원칙적 합의에는 도달했지만 실제 이행 방식과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종전 합의의 쟁점은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라고 짚었다. 이

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미사일 비축량 등도 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관료는 이러한 사항들이 “향후 협상에서 다루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신문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협상에서의 논의 등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좋고 적절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협상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비판하는 패배자들”이라고도 적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무소속 전·현 경남도의원 11명, 김경수 후보 지지 선언 /사진 뉴시스
▲부산 野 출마자들 공세 나선 與…“한동훈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몰랐나”

▲조국혁신당 “민주, 김용남에 ‘대부업 의혹’ 자료 공개 요구하고 책임있는 조치해야”
▲박근혜 25분간 방문한 고 윤영수 생가 ‘복적’… “일할 기회 주세요”

▲추미애 “주거불안 덜고, 청년 미래·지역 발전 뒷받침” 공약
▲이정현 “광주전남, 시·데이터·에너지산업 국가 거점으로 육성”